

보성다향대축제 내달 1일 개막... '말차' 흥행 있다

한국문화공원 일원 5일간 개최
말차 브랜드관·오후의 차밭 운영
야간 영화관 등 MZ 특화 인프라
서편제·마라톤 등 연계 행사 풍성

보성군은 지역 특산물인 '보성 말차'를 전면에 내세운 대규모 문화 관광 축제를 열고 전통 차 문화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청년층 및 글로벌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14일 보성군에 따르면 오는 5월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한국문화공원 일원에서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를 개최한다.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 축제는 '보성말차! 젊음을 담다! 세계를 담다!'를 주제로, 기존 전통 차 중심의 관람형 구조에서

벗어나 '말차'를 특화 키워드로 설정하고 청년 세대와 해외 방문객을 겨냥한 맞춤형 체험·참여형 콘텐츠를 대폭 확대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핵심 인프라인 '보성말차 브랜드관'으로, 군은 해당 공간에서 말차를 활용한 특화 음료와 디저트 시식 체험은 물론, 지역 생산 제품의 상설 전시 및 판매 부스를 동시 운영해 보성 말차의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입증할 계획이다.

지난해 높은 수요를 반영해 대표 체험형 프로그램인 '오후의 차밭(그랜드 티 파티)'을 행사 기간 중 4일간 상설 운영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국어 안내 및 맞춤형 다도 체험 코스로 개편했다.

특히 보성 찻잎 따기, 전통 차 만들기, 보성 티 마스터컵 등 생산부터 음용까지 이어지는 차 문화 융복합 콘텐츠도 연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청년층 유입을 위한 세대 맞춤형 특



지난 2024년 열린 '말차로 젊음과 세계를 잇다! 보성다향대축제'에서 관광객들이 '오후의 차밭(그랜드 티 파티)'을 즐기고 있다. <보성군 제공>

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보성 Tea지컬-100(녹차올림픽)', '녹차도둑을 잡아라(경찰과 도둑)', '보성 티-콘서트' 등 현장 참여형 액티비티가 운

영된다. 또한 레트로 콘셉트 결혼식 체험, 차밭 특화 포토존, 스냅 촬영 프로그램 등 누리소통망(SN

S)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축제의 온라인 확산과 급격히 높아질 전망이다.

야간 체험 시간 연장을 위해 차밭 경관을 배경으로 한 '차밭 별빛 시네마(야간 영화관)'와 천체관측 및 캠핑이 융합된 '보성에 물든 달' 프로그램 등을 편성해 주야간이 연계된 체험형 축제 구조를 구축했다.

서성균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장은 "보성말차를 글로벌 특화 브랜드로 육성하고 차 문화 기반의 융복합 관광 축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행사의 핵심 목표"라며 "지역 인프라 연계 및 체험 콘텐츠 확대에 행정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축제 기간 중 보성군민의 날 행사를 비롯해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일림산철쭉문화행사, 어린이날 행사, 녹차마라톤대회 등 대규모 지역 연계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다.

/보성=임병연 기자

장성군, 청년 성장 거점센터 '아우름' 개관

18-49세 누구나 무료 이용
취업·취미 아우름 강좌 운영

장성군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문화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자립 성장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맞춤형 청년 정책 추진에 나선다.

14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을 중심가에 조성된 청년센터 '아우름'이 이달 정식 개관하고 본격적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돌입했다.

해당 시설은 연면적 582㎡, 지상 2층 규모로 1

층에는 공유 카페와 회의실, 2층에는 일자리센터와 다목적홀 등을 갖췄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장성군에 거주하는 18-49세 청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달에는 요가, 림팩 및 버터팩 만들기 등 문화 강좌를 비롯해 사회 초년생 이미지 메이킹, 재무 설계 특강, 인공지능(AI) 활용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실무 중심의 취업 지원과 취미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강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과 연계해 오는 6월 '농촌융복합산업 교육'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지역 특화 산업인 'AI 데이터센터 운영 인력 양성' 교육을 가동해 미래 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설 내 공유 회의실 등은 사전 신청을 통해 1일 최대 4시간까지 대관이 가능하다.

심우정 장성부군수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곡성군은 최근 장흥군 일원에서 블루베리 공선출하회 소속 농업인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견학 교육을 진행했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 '블루베리 선진 재배기술' 도입

공선출하회 장흥서 노하우 공유

곡성군은 14일 "지역 특화 품목인 블루베리의 고품질 생산과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 농가 중심의 현장 밀착형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장흥군 일원에서 블루베리 공선출하회 소속 농업인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 재배 기술 습득 및 정보 교류를 위한 현장 견학

교육을 진행했다. 참여 농가들은 장흥 지역 공동선별장과 육묘장, 시설 하우스 등을 순회하며 실효성 있는 농장 운영 노하우를 직접 확인했다.

특히 다검보온커튼 및 뜰재배 방식을 접목한 수확 시기 단축 사례, 온도 총량 중심의 단계별 환경 관리, 공선출하에 적합한 우량 품종 선택 등 조기 출하를 위한 핵심 기술이 집중적으로 공유됐다.

아울러 노지와 시설 재배를 병행한 장기 출하 체계 구축 사례와 비상품과를 가공용으로 전환하는 부가 가치 창출 방안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유통 전략도 함께 다뤄졌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선도 농가의 검증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맞춤형 기술 컨설팅을 지속 추진해 지역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유통 조직망 강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여수해수청, 맞춤형 항로표지 안전교육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야간 조업 등 해상 활동이 잦은 지역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항로표지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선제적인 해양 사고 예방에 나선다.

14일 여수해수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오는 20·22일 등 총 3회에 걸쳐 여수수협중앙회에서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항로표지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사진>

이번 교육은 항해 시 필수적인 항로표지의 종류와 기능, 올바른 활용 방법 및 주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항로표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인하는 선박 충돌 및 좌초 등 해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정책적 방점을 뒀다.

이와 함께 공적 기강 확립을 위한 반부패 및 청렴도 제고 캠페인도 현장에서 병행 추진된다.

어선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항로표지 파손이나 소등 상태를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 채널과 방법도 함께 전파할 계획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해양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해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장흥군 '태국 송크란'서 물축제 홍보부스 운영

양국 문화 교류 방안 논의

장흥군은 태국 최대 명절이자 대표 물 축제인 송크란 현장에서 다각적인 글로벌 교류 홍보전을 전개하며 '정남진장흥물축제'의 세계화에 나선다. 14일 장흥군에 따르면 교류단은 지난 11일부터 태국 방콕 벤차카티 포레스트 파크 일원에서 열린 '마하 송크란 축제'에 참석해 전용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사진>

이번 일정은 전남도 '지역축제 글로벌화 교류 공모사업' 3년 연속 선정에 따른 것으로, 노영환 장흥부군수 등 교류단은 타이니 까얏 파이브 태국 관광청장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양국 문

화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부스에서는 장흥 물축제만의 차별화된 수자원 체험 요소와 무대 공연 콘텐츠를 집중 홍보했다.

군은 이번 국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오는 7월25일-8월2일 탐진강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9회 장흥 물축제 기간 중 태국 전통 공연단 초청 및 연계 홍보관 운영 등 후속 교류 프로그램을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예비 글로벌 축제인 장흥 물축제의 해외 연계를 지속 강화해 실질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고흥물' 봄맞이 특별 기획전...최대 50% 할인

22일까지...농수특산물 판로 확대

고흥군이 지역 대표 농수특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대표 농수특산물의 판로를 확대한다.

14일 고흥군에 따르면 전날부터 오는 22일까지 10일간 봄맞이 특별 기획전인 '이건 그냥 고흥이라 삽니다'를 추진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각종 김치류와 완숙 토마토, 나지, 유러피언 샐러드, 흑마늘 진액, 석류 콜라겐 등 지역 내 주요 농수산물 및 건강 식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앞서 고흥물은 전남도 운영 쇼핑몰인 '남도장

터' 연합몰 시스템과의 전면적인 통합을 통해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고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과 플랫폼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

군은 이번 기획전을 기점으로 '고흥물'의 모바일 전용 앱을 신규 출시하고, 지역 화폐인 '고흥사랑상품권'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등 공공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자생력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산지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지역 농어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고흥물을 지역 농수특산물의 안정적인 핵심 소비 기반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순천시, 전 시민 민생지원금 15만원 지급

20일부터 5월15일까지 접수

순천시가 정부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는 별도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한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5월15일까지 관내 27만9천여명의 전 시민에게 1인당 1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 2월 기준 순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둔 사람으로,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며 주말인 25일 창구 운영 및 27일부터는 요일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모바일형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류형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모바일은 신청 다음 날, 지류는 현장에서 즉시 수령 가능하며, 지급된 상품권은 오는 9월30일까지 관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성인은 개인별 지급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일괄 수령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정부 시책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자체 보편적 복지 시책"이라며 "신속한 지원금 집행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양홍렬 기자